상번제 하나 반복하다 가는 인생

(출29:38~46)

38.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 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39.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0.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찧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더할지며
41.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42.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상번제 하나 반복하다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상번제 하나 반복하다가 가는 인생’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문장입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로 실패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성공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The One Thing”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로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인데 부제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으로 한글 번역 제목은 ‘한 가지에 집중하라’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그 동안의 자기계발서의 특징이 자기계발의 원칙을 4가지, 7가지 습관 등으로 나열하는 것이었다면, 이 책의 요지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한 가지를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 뿐, multitask, multitasking으로 여러 가지 문제

를 동시다발적으로 행할 수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인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책이 지향하는 성공의 내용과 제가 생각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다른 것이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설교를 할 때에도 신앙의 행동원칙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나열할 때가 많지만 그대로 못합니다. 십계명도 한 계명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 하나를 이루면 다른 것도 따라오는 것일 뿐, 열 가지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못 하고 한 가지만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상번제”입니다.
‘상번제(常燔祭)’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늘 상(常)입니다. 늘 드리는 제사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이고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로 이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는 인생으로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공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사업장에 나가서도 이 한 가지 상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보필하고 자녀를 키우시는 것이 성공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 보필하지 마시고, 자녀 키우지 마시고, 가정 돌보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상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평생 동안 상번제 하나를 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뀌었다면 새로 적응하려는 노력보다도 상번제 하나를 드리면 됩니다. 도자기 굽는 사람이 평생 도자기만 굽는 것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이 평생 그림만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평생 피아노만 치다가 인생이 끝나듯이, 선민은 평생 한 가지 일인 상번제만 드리다 가는 것으로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상번제 한 가지만을 드리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 상번제의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가 “오늘의 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규정하신 이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규정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오늘 분의 번제인 오늘의 번제로 매일 매일 드리는 것이죠.

이 상번제는 3대 절기 때에 드리는 제사라든지, 개인적으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 외에 일 년 내내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일 년 된 어린 양을 아침저녁으로 한 마리씩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소제는 고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에 소제와 전제를 곁들여서 드리는 것이 상번제인데, 제사장 위임식 직후부터 주어진 첫 번째 직무입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되면 커피타기부터 하고 복사나 잔심부름부터 하게 되고, 승진을 하면 점점 비중 있는 업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면서부터 바로 행해야 될 일이 상번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번제는 제사장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더 중요한 업무로 대

체가 되지 않습니다. 위임식을 바로 마친 초년병 제사장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노년의 고참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받고 나서부터 평생직으로 죽을 때까지 제사장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한 해야 될 일이 상번제로 이 한 가지를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만인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도 그렇게 상번제 하나를 하다가 죽는 것으로 대단한 것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직장에 나가고, 사업하고, 애 키우고, 의사하고, 선생하고, 목회하는 것 다 버리고, 내가 선민인 한 제사장으로서 상번제 한 가지만 하다 죽겠다고 결심하면 맞습니다.

도대체 이 상번제가 무엇일까요?
아침저녁으로 두 번씩 번제를 일 년 내내 드립니다. '제사'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준비되고 진행되어서 마치는 것으로 후다닥 해치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들여 제사와 제사물을 준비하고, 양을 잡아서 하나씩 각을 뜨고 번제단에 벌려 불을 태우는 중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것들이 다 타면 그 재를 가져다 버리고, 모든 제사에 들어갔던 모든 기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면서도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나무를 보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불은 일 년 내내 365일 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제사 드리고 한나절이 지나서 점심때가 됩니다. 그리고 잠깐 있으면 저녁이 되는데 또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또 정돈하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반복입니다. 거기에 중간 중간 절기 때에는 제사를 드리고, 각 사람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일 년 내내 이러고 삽니까?
제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이 세상에 못할 짓이 이것이구나."라는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고맙고 감사하지만 치과 의사들은 일 년 내내 남의 입만 쳐다보고 삽니다. 이가 썩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만 들여다봐야 하고 그걸 하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답답하니 여행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 당시 제사장 시절에는 여행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선민의 인생이라고 정하셨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로 만인제사장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상번제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번제를 하게 됩니까?
결국 제사장들만이 드리는 제사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살게 됩니다. 아직은 광야에 모여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상번제는 지속됩니다. 팔레스틴 전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끼리 드리는 상번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을 널널하게 보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제정해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상번제는 오늘 식으

로 말하면 전국동시방송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회막이나 회막 뜰 번제단 앞에 그 몸이 와 있지는 않지만 각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짓고 사냥하고 살 때에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번제에서 "일 년 된 어린 양이 죽는다."라는 것은 사건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번제라는 사건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에 있는 선민 모두가 다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마주 앉은 부부에게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회막 뜰 번제단에서 죽고 있다"라는 방송이 들리는 것입니다. 선민은 늘 하나님께서 상번제에서 하시는 말씀인 "너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다. 오늘 하늘에 있는 나에 대해서만 산 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늘에서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양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행복의 근거와 이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보면서도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내 때문에 불만이 생길 때마다 "너는 세상에 있는 아내에 대해 죽은 자다. 너는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인 나 여호와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라는 방송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나가서도 사업이 잘 안 될 때에 "네가 지금 왜 걱정을 하느냐? 너는 사업에 대해서 죽은 자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양 한 마리가 사업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잘못된 너 대신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전국방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직 선민은 구분된 자는 사업장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기뻐하려는 마음이 내게도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사업장에 안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업장에 보내시는 이유는 선민이 상번제를 마음으로 동참해서 드릴 때에, 사업장에 있는 선민의 마음은 예루살렘성전에서 나 대신 죽는 양의 번제의 현장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가면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업장으로 오시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상번제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모임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 개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

을 뿐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모이지만 하나님이 지긋지긋해 하시는 이유는 마음은 전부 세상 돈에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고, 자식에 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몸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도 몸만 모여 있지 마음은 전부 이 땅의 사업, 성공, 형통에 가 있는데 그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전국에 흩어져있어도 마음은 하늘로 향하기 위하여 번제단에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민입니다. 250만 명의 이스라엘 선민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자기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250만 명의 마음이 번제단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민의 모습입니다. 몸이 안 모여 있어도 마음이 번제단에 모여 있는 이 상태 이대로가 교회이고 이게 선민입니다. 그러면 몸이 모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세상에 대해 죽어서 각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거 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마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전 뜰만 밟게 되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어 해서 마음에 담았던 내 존재의 상태가 타 죽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올라'에서 나온 것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 연합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다 타버리고 세상과 결별한 내 순수한 마음이 연기처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소제는 밀을 곱게 갈아서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존재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에 '매 순간'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나올 때에 말씀드리겠지만, 존재는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년 동안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5년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에게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뭉텅이로 잘라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획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6: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이틀이 붙어있을 수가 없고, 내일 모레에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이 시간들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한 달 단위의 뭉텅이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다 가루가 되어서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하늘로 이어져가야 하는 것으로 지평면 상에서 앞을 볼 수 없고 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

어서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번제인데, 그 일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소제의 의미로 시간을 가루로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라고 하신 것 같이 이 지평면 상에서는 3년, 1년, 일주일, 이틀도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틀도 한 단위로 묶을 수가 없이 매 순간 하늘을 향해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선민이 이 땅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 매 순간 마음을 땅에 대해 죽이고 하늘로 올려 보내면 하나님으로 기뻐지게 되는데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사건 때에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가 드려져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나의 마음 상태가 죽고, 소제를 통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기뻐짐이 매 순간마다 반복되어 일어날 때에 하나님으로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면 돈에 취한 것입니다. 술 먹어서 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고 말 많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취하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뜻의 성취입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취해서 행동합니다. 아이 앞에서 하나님께 취해서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술기운으로 말하듯이 하나님에 취해서 하나님 기운으로 말하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돈을 공정히 분배 받아야 하는데 부당하게 받아서 불평이 생길 때면, 기독교가 끼어들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해서 민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면서 민중들이여 일어나서 봉기를 하고 내 권리를 찾으라."라고 기독교를 취하게 하는 아편에 비유하는데 마르크스는 돈에 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 돈 할 때에는 돈에 취한 것이고, 자식, 자식 할 때에는 자식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번제에 소제의 의미를 더해 매 순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기뻐지게 될 것을 기도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에 취한 자가 되듯이 하나님께 취한 자로 삶이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의 번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분의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소제와 전제의 의미까지 다 함축하여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번제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는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적 요소와 강해적 요소가 없이 설교가 준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와 강해는 제가 하는 것이고, 오늘의 번제를 말씀드리는 의도와 목적은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죽는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전국에 흩어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지금 회막 번제단에서 죽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

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상황이 성경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소재와 상황과 언어들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모든 내용이 십자가 상번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십자가 이야기가 몇 번 나오지 않더라도 십자가가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서로 자각하고 깨닫게 할 수 있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것 하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하며 번제를 드리되 소제의 의미대로 매 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포도주에 취하듯이 하나님께 취해서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실 때에 나는 상번제 하나를 할 뿐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가지가지 다양한 일들이(multitasking)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번제 하다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he One Thing'은 상번제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잊지 않고 오늘 분의 번제를 드림으로 매 순간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진 마음이 하나님께 취하여 하나님의 기운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